

# 2003년도 한문학 분야 연구 동향

김 동 준 (홍익대)

1. 서론
2. 연구 경향에 대한 개괄
3. 독서 확대를 위한 몇 갈래의 대응
4. 여성 논의의 향방
5. 소품문 논의의 안팎
6. 결론

## 1. 서론

2003년도 한 해의 연구사를 검토하기에 앞서, 세 가지 양해를 구한다. 첫째, 필자는 1년 단위로 연구사를 진단하는 방식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특정 1년과 그 전후 연도 사이에 차별적 표지가 그렇게 많은가? 자료 발굴, 역주, 선집, 작가론, 작품론, 비평, 대중적 저술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작업은 미처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새롭고 가치 있는 연구동향이 포착된다 해도, 대체로 그것들은 1년이라는 시간의 마디에 제약되기보다는 그 전의 싹을 잇곤 한다. 따라서 '1년의 특별함'을 기대하는 눈으로는 1년 단위의 연구사에 임하기가 어렵고 버겁다.

1년 단위의 연구사가 수십 년 단위의 연구사보다 나은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좀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연구 성과를 보고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연구의 새싹을 발견하고 의미부여하는 일이 될 터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백 편으로 예상되는 논저 분량은 애초 목록 파악부터가 어렵다. 필자는 학계의 합의를 도출하여, 저자가 의무적으로 지난 한 해의 논저

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당장 이 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필자가 살피지 못하고, 더불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성과가 적지 않으리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두 번째의 양해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시각 및 기술방식과 관련하여 양해를 구한다. 논저마다 연구자의 깊은 고민과 탐색이 배어 있다고 여기지만, 개별성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첨부목록으로 이를 대신하여 수고로움을 피하려 한다. 그 대신 2003년도 연구현황을 개략한 다음, 연구주제와 방법, 한문학연구에 대한 전망 등에 있어서 새롭거나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별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 2. 연구 경향에 대한 개괄

전년도도 그러했듯이 2003년 한 해도 한시(작가)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외에 자료의 정리와 발굴, 산문연구, 비평, 소설, 대중적 저술, 번역, 에세이 등이 두루 시도되었다. 또한 한 해에 수백 편의 논저가 제출되는 양적 확대와 비례하여, 전체적으로 문학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연구영역의 확장, 작가론·작품론 등의 확대가 눈에 띄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글의 발표형식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먼저, 단행본의 경우, 독자 및 연구자의 확대 방향에서 포착될 수 있는 저술이 많았다. 시선집, 번역서, 안내개론서, 평전, 에세이는 물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저술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역주 목은 시고, 5—6』(여운필, 성범중, 최재남), 『옛 문인들의 붓끝에 오르내린 고려 시 1』(김동욱), 『다시 옛 詩情을 더듬어 : 한국 역대 한시 평설』(손종섭), 『재미있는 한시 이야기』(정관호), 『북학의』(안대회 역), 『나를 돌려다 오 — 이용휴, 이가환 산문집』(안대회), 『몸은 곤궁하나 시는 썩지 않네 : 옛시인들을 만나 인생을 논하다』(송재소), 『한학 연구 입문』(심경호), 『김시습 평전』(심경호), 『조선의 뒷골목 풍경』(강명관),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 1·2권(정민), 『열하일기 — 유쾌한 웃음과 역설의 시공간』(고미숙), 『문화와 근대 : 최한기 사상에 대한 음미』(박희병) 등이 그 예이다.

한 학자가 오랜 경륜과 사명감 끝에 내놓은 성과도 여기에서 결코 빼놓을 수가 없다. 『지방문학사 — 연구의 방향과 과제』(조동일), 『韓國 漢詩의 探究』(류재일), 『한문 운문문체의 이해와 분석』(김종철), 『麗末鮮初 漢文學의 再照明』(이병혁), 『고려후기 사대부문학 연구』(박성규), 『朝鮮朝 漢文學의 照明』(김상홍), 『韓國漢詩批評의 研究』(박수천), 『조선 중기 한시 비평론』(조용희), 『경남문학의 원류와 자장』(최재남) 등은 각각 연구자로서의 인생과 지향이 축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편저는 요즈음 학계의 동향을 가늠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 『국문학 연구 50년』(한국문화연구원 편), 『한국한문학과 미학』(한국한문학회 편), 『조선후기 小品文의 실제』(안대회 편),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인식』(이혜순 외 14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박영민·정출현·이형대·조현실) 등에서 보듯이, 한문학 연구의 방향, 미학, 소품문, 여성이 바야흐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논문은 대부분이 작가론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박사논문도 이에 드는 예가 많았다. 『김중직 시문학의 한 연구』(이원걸, 성균관대), 『매산 이하진 시문학 연구』(윤재환, 성균관대), 『해암 유경종의 시문학 연구』(김동준, 서울대), 『이서구 시문학 연구』(남재철, 성균관대), 『풍석 서유구에 대한 한 연구』(조창록, 성균관대), 『초의선사의 시문학 연구』(조태성, 전남대), 『관암 홍경모의 시문과 그 성격』(이군선, 성균관대) 등에서 보듯, 이들은 주로 기존 연구사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인물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외에 『고려말 한시 풍격 연구』(최광범, 고려대), 『16세기 사림의 기문 연구』(김정인, 이화여대), 『수사록연구』(김동석, 성균관대), 『원평도와 박지원의 문학사상 연구』(이우일, 성신여대), 『조선후기 만명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김영진, 고려대) 등이 있어서, 작품의 풍격연구, 사상연구, 비교연구 등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sup>1)</sup>

세 번째, 일반논문의 경우, 자료의 발굴과 조사, 작가론, 작품론, 사상론, 비교연구, 연구사 등이 골고루 포진해 있었으며,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많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필자가 특별히 주목하는 몇 가지만을 예로 들고자 한다. 우선, 한문학연구 자체를 되돌아보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본 국문학회의 『국문학연구』가 매년 한 해의 연구사를 정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국문화연구원의 『국문학연구50년』, 『대동한문학』 19집에서 기획한 「한국한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 있고, 논문을 통해 발표되지는 않지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도 매년 1년 단위로 한 해의 연구사를 종합 정리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려는 자세와 반세기 동안의 연구 역량 축적이 만나 이루어진 현상으로, 이제 한문학 연구도 연구사 자체의 반성과 전망이 하나의 연구영역이 된 셈이다.

반성적 자세는 다시 확실한 기초를 다지려는 노력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눈에 띄는 경향이다. 예컨대, 『대동한문학』 18호는 「한국 고문헌정리의 현황과 과제」를 기획하여 국내(윤재민), 중국(황위주), 일본(심경호), 유럽(박상중), 미국(이순구)의 고문헌을 종합하였다. 모름지기 자료의 정리와 파악이 연구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앞의 단행본에서 제시된 바이지만, 여성에 관한 논의가 일정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령 앞의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인식』에는 이규보, 이색, 변계량, 서거정, 김인후, 신희, 허균, 정두경, 송시열, 김창협, 오원, 정범조, 이덕무, 신위, 유인석 등, 사대부 지식인이 어떻게 여성을 인식했는가 하는 주제를 두고, 이화여대와 관련이 있는 15인이 이 기획 과제에 동참했다. 박영민이 또한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그 전년도로도 소급이 가능한 것이다. 한 가지 곁들여 주목되는 것은 여성 논의가 많아지면서, 이를 살피는 과정에서 묘지명, 재문이 주

1) 이외에 국문시가와 교섭하는 영역에서 『유고산 문학연구』(장명덕, 원광대), 『송강 정철 시문학연구』(김진욱, 조선대)가, 한문서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조선조 폐설문학 연구』(김준형, 고려대), 『17세기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과 그 소설사적 의미』(양승민, 고려대), 『조선후기 여향인물전 연구』(김정일, 동아대),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 세계와 문학사적 위상』(류준경, 서울대), 『조선후기 김성탄 문학비평의 수용양상 연구』(한매, 성균관대), 『삼한습유 연구』(정의영, 대구대)도 있었으나, 이는 시가와 소설분야에서 검토된 것으로 본다.

요한 연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를 검증하려는 필요에 따라, 소설과 유기 등에 치중했던 기존 연구경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네 번째로 주목되는 동향은 근래 소품문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후기 小品文의 실제』라는 편저에서 이미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드러나고 있거니와, 정민, 안대회, 김성진, 김영진 등이 이와 관련된 논문을 내놓았다. 소품문 연구는 한편으로 조선문단에 드리운 중국문단의 영향을 살피는 쪽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귀추도 주목해 볼 만하다.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더라도, 한문학 저변화에 기여하는 움직임은 또한 빼놓을 수 없을 듯하다. 대표적인 것이 『문헌과 해석』인데, 여기에는 「옛글의 뜻과 정」, 「문화의 창」, 「연속인 물기획」 등의 코너가 마련되어, 매번 독자에게 친근한 글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 인물에 대한 여러 학문분야의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상 2003년도 한문학 연구동향을 개괄하여 보았다. 정리하자면, 연구자의 증대에 따라 학문학 연구의 각 분야가 두루 검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독자의 확대를 위한 저술, 여성·소품문 논의의 활성화를 중요한 경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런 전반적인 연구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어느덧 약화되어 가는 연구대상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연구역량에 대한 반성이 들기도 한다. 가령 지금까지 수십 년간 성행했던 민족·국가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환경과 생태에 대한 논의도 찾기가 어려웠다. 창작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사라졌다. 말하자면, 문학연구가 감당해야 할 육중한 주제와 대상이 점차 연구 시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자꾸 작은 것으로 눈을 돌리는 연구자의 소심함 탓인지, 혹은 이러한 경향 자체가 이 시대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 되묻고 싶다. 하지만, 당대사회에 대해 문학연구자가 당당히 대응하려면, 또다시 우리 학계 전체가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과 영역이 필요 하리라 생각해본다.

### 3. 독서 확대를 위한 몇 갈래의 대응

2002년도 한문학 연구 동향 보고에서 ‘한문학과 현대의 소통’을 첫 번째 문제를 꼽았는데, 2003년도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단행본 저술의 영역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주지하듯 한문학 분야의 숙제 중 하나는 한문 매체를 어떻게 극복하여 오늘날의 독자가 쉽게 읽고 실감과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이런 고민은 번역과 해설, 초심자를 위한 개론서, 흥미의 비중을 높인 연문, 특별한 인물에 대한 평전, 문학 범주를 넘나드는 문화적 저술 등을 낳기도 한다.

2003년도는 위에 제기한 모든 방향이 두루 시험된 한 해였다고 보인다. 우선, 『한시작법』(김신형), 『한학 연구 입문 : 한문과 한문고전, 이렇게 시작하자』(심경호) 등, 초심자를 위한 개론서가 나왔다. 이런 저술은 애초 대중의 광범위한 호응을 유발시키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을 바탕으로 초학자를 안내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런 입문서는 언제나 필요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정석이 될지언정 새로운 연구동향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음의 대응방식들이 더욱 주목을 끈다.

번역 해설서들을 보자. 『역주 목은시고, 5-6』(여운필, 성범중, 최재남 공역)와 같이 꼼꼼한 주석을 단 전문 역서가 나왔는가 하면, 『몸은 곤궁하나 시는 썩지 않네 : 옛시인들을 만나 인생을 논하다』(송재소), 『다시 옛詩情을 더듬어 : 한국 역대 漢詩 평설』(손종섭), 『옛 문인들의 붓끝에 오르내린 고려시, 1』(김동욱 편역), 『재미있는 한시 이야기』(정관호), 『북학의 : 조선의 근대를 꿈꾼 사상가 박제가의 개혁 개방론』(안대회)처럼 보다 쉽게 독자에게 이해될 수 있는 번역, 해설서들이 잇달아 간행되었다.

송재소가 밝힌 것처럼, 연구자가 주문생산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쉽게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더구나 이 시대의 문화적 지형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헤아린다면, 문학저술이라고 해서 대중적 인기를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아니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적어도 몇 가지 주의할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내용 소개 수준을 넘

는 작품 감식안이 필수적이다. 이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둘째, 자료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 새로운 해석 시각 등이 곁들여져야 할 것이다. 평이한 문체, 자유로운 형식으로 쉽게 쓴다고 해서 독자가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삶에 대한 통찰력과 신선한 표현을 놓친다면, 읽기 쉬운 것은 더 이상 미덕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연구자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고전 작품의 의미를 오늘날의 언어로 생동시킬 수 있으려면, 다시금 표현과 사유를 되새겨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비판의 맥락에서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고 있는 저술들이 있어서 관심을 끈다. 도전의 갈래는 대략 세 가지이다. 『조선의 뒷골목 풍경』(강명관),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 1·2권(정민)을 보자. 이들의 공통점은 시야의 확대이다. 앞의 번역 평설서들이 주로 문학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반면, 이들은 문학범주를 넘어서서 문화에 대한 자유롭고 포괄적 이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독자의 호응을 받고 있다. (요즘의 일반 독자들은 작품 해설이 수반하기 마련인 ‘한 수 가르침’에 식상한 대신, 순문학을 넘어서 현재의 생활에 친근하게 다가서는 것을 선호하는 듯하다)

강명관과 정민은 베스트셀러 작가 명단에 올라 있다. 상계동의 조그만 책방에서 물어보니, 이 두 책이 요즘 잘 나간다고 한다. 단지 시운이 좋아서 둘이 성공한 저자가 되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앞의 시야 확대 외에 더 요구되었던 성공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둘은 준비된 저자이다. 정민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새를 찾아서 새 소리 테이프, 각국의 도록, 각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모았고, 한편으로는 관련 작품과 그림을 찾아서 몇 년의 세월 공을 쏟았다. 강명관은 김작전대 조선후기 중인문학을 전공한 이후, 계속해서 시정인의 삶에 관한 주변자료를 열독하고 또 모아두었던 듯하다. 그의 책에 인용된 수많은 출처들은 그간의 부지런함이 빛을 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은 또한 흥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며 이를 돋을 줄 안다. 강명관이 ‘도둑과 강패, 노름판과 술집 등 하찮은 잡동사니를 다룬 이유가 흥미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밝힌 것이나,

정민이 ‘인문학 가로지르기’를 감행하며 ‘옛글 속의 무진장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발견하려 기도한 것이 그렇고, 짙막하고 쉬운 문장을 써서 독자의 눈과 머리를 피곤하지 않게 한 것이 또 그러하다(독자의 읽어내는 힘에 관한 개탄과 시비는 그 다음 문제이다). 강명관의 책에는 ‘유쾌한 풍속 기행’이라는 소개말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그의 글은 한 줄을 넘지 않는 문장이 툭툭 끼어들며 경쾌한 사고의 전환과 속도를 뽐낸다. 셋째, 인생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안목이 곁들여져 있다. 정민은 새를 통해 인간 군상의 여러 속성을 우의하였고, 강명관은 문화의 속살을 까발리면서도 ‘존재했던 다양성과 구체성을 지워버리는 중심 담론의 독재’를 경계하였다. 그는 자신의 자질구레한 일상을 존중하며 과거의 뒷골목 사람들과 실감나게 만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여, 그것으로 ‘과거 인간들의 리얼리티’를 캐묻고 있다.

하지만 반문이 든다. 이런 저술을 계속해서 성공해서 저술로 인정할 수 있을까? 아니,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 동안은 가능할 것이다. 새 외에 벌레도 있고, 나무도 있으며, 뒷골목 뒤에는 또 다른 뒷골목이 있으니. 하지만 나열적 진행이 식상함을 부르고, 동질성의 반복이 지속적 흥미를 보장하지 않음을 저자들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가령 ‘한문학 관계 논문을 쓰는 것이 인생의 소임’이므로 이런 저술은 ‘계륵’이라고 밝힌 강명관의 진술은 이런 저술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강명관이 이런 시도를 통해 ‘그중에는 그야말로 체계를 세워 엄밀하고 풍부하게 써야 하는 주제도 있다. 하지만 그건 뒷날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한 대로, 이런 저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심급이 더 남아 있다. 아마도 그곳에는 인간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정열이 배어 있어야 할 터이고, 또 새로운 깨달음과 표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철저한 실증과 분석, 가슴을 파고드는 한 줄의 음미, 책갈피를 잡고 손을 떠는 감동이 어우러진, 『열하일기』와 같은 사례가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을 듯도 하다.

강명관, 정민이 보여준 시도 외에 두 번째로 『김시습 평전』(심경호)을 주목해 보자. 평전이라면 필자는 개인적으로 『소동과 평전』(임어당), 『공자, 인간과 신화』(H.G 크릴) 등이 떠오른다. 사실, 평전은 인문적 저술로서 충분히 도전할 만한 대상이고, 또 그래왔다. 인간과 해당 시대에 대한

정보, 인간에 대한 통찰력, 저자와 대상 인물간의 지우, 그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가 교섭하여 이룩해내는 생생한 인간의 발견이 평전의 매력을 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과 실증을 축으로 인물의 인생행로를 뒤쫓아 가는 모습으로는 평전의 매력처에 도달할 수 없을 듯하다. 『김시습 평전』의 경우, 인물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준다는 점에는 장점이 있으나, 인물에 포개어져야 할 저자의 감성과 해안이 묻혀 있다. 그래서 축축한 실감과 감동 대신 딱딱하고 메마른 목소리를 만나게 된다. 필자 생각에, 평전으로의 도전에는, 저자 당대에 대한 투시, 대상 인물에 깊은 이해, 그리고 인물이 놓인 시대에 대한 입체적 정보가 바탕이 되고, 거기에 사마천이 보여준 솜씨를 발휘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야 하지 않을까 여겨본다.

도전의 세 번째 갈래를 살펴보자. 그것은 고전을 통한 에세이인데, 지난해에는 『운화와 근대 : 최한기 사상에 대한 음미』(박희병), 『열하일기 —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고미숙)이 나왔다. 이중 고미숙의 저술은 아쉬운 것이 많았다. 저자가 연암에 매료된 것도 분명하고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자주 나오는 느낌표가 보여 주듯, 그는 자신이 느꼈던 감동을 생생히 전달하기보다는 자기도취의 탄성을 연발하고 말았다. 생생한 전달을 희석시킨 열성적 추종이 오히려 『열하일기』를 상해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다.

박희병의 책은 주제의 진지함과 글쓰기의 자유로움을 결합시킨 올해의 문제작이라 보인다. 그의 진지한 태도를 보자. 그의 말에 따르면(서문), 그는 ‘근대확인’의 관점이 아닌 ‘근대 성찰’의 관점에서 최한기 사상과 역사적 근대의 관련을 따지고 음미하여, 그것으로 근대 ‘극복’을 향한 모색에 기여하고자 희망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과 사유가 얼마나 치열한 긴장 속에서 서로 대결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며, 이점에 의해서만 진지함과 깊이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끈질기게 최한기 사상의 문제점을 파헤치며 그것을 비판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최한기 사상의 장점이 정당하게 음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연구자 당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 추종이 아닌 대등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대상 인물과 대화함으로써, 자신과 대상을 함께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서문의 내용은 그야말로 지적 긴장과 무게가 서려 있다. 과거와 현재의 문제의식이 교차하는 가운데, 연구자 당대에 대한 비판력, 연구대상에 대한 비판력, 시대의 문제에 대한 반성과 전망을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은 의미의 심장함과 달리 역설적이게도 수필적 글쓰기를 감행하고 있어서 저술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우선 그의 해명대로라면, 설령 떠들떠들 말한다고 해도 남이 아닌 나의 혀로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것, 비교적 자유롭게 저자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이점을 그 사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글쓰기 방식도 그 저변에 최한기의 선례를 계승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본문에서(136면) 말한바, 최한기가 『성호사설』, 『인정』과 같은 잡기만록적 글쓰기 관습을 따르면서도 이 형식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산만함과 무잡성을 덜어내 버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작 이 책이 그러한 지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 책은 본문의 각항에 제목이 붙어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차례에서 보여주는 대로 정연한 질서를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심화와 확대」라는 본문에서는 저자가 최한기를 통해 대면하고 싶은 우리 시대의 핵심적 개념과 문제를 자유롭게 개진하였다. 그러면서도 독자가 알기 쉽도록 평이한 문체를 사용하였으므로, 그는 은연중 잡록이 지니는 장점의 효과와 아울러 독자층을 확대 효과를 동시에 거두어들이고 있다.

박희병의 책이 의식과 표현 양면에서, 학자로서의 자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최선에 도달하려는 그의 정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시종 진지함은 독자를 주눅 들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자아와 세계를 잇는 치열한 만남에서, 필자는 이 속에 화해의 개념이 넉넉히 수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화해의 영역에서,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즐거움과 여유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 4. 여성 논의의 향방

바야흐로 여성이 화제다. 한 동안 학계의 주변에서 환경이 화두가 된 적이 있었지만, 적어도 지난해에는 한문학 분야에서 이 계통의 논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여성에 대한 논의는 의욕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추세이다.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박영민·정출현·이형대·조현설),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 인식』(이혜순 외 14인), 『한국한시와 여성인식의 구도』(박영민), 『한국 고전 여성문학의 세계 : 散文篇』(이혜순, 정하영 공역편) 등의 단행본을 포함하여, 「고전문학 연구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낳은 쟁점들」(이지양)이라는 논문이 나왔다. 이 중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태학사, 1999)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 인식』에는 총 15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일부는 여타의 학술지에도 게재되어 있다.

딸 쌍둥이를 둔 필자는 원론적으로 여성 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한문학 자료를 통해 이 주제와 심각하게 대면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이 분야 전문가들의 대응을 주시한 뒤, 몇 가지를 추가로 언급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 인식』에 나타난 15인의 논문을 소개해본다. 여기에는 1. 이규보: 삶과 문학의 이원적 여성인식(박재금); 2. 이색: 여말선초 여성인식의 일국면(김보경); 3. 변계량: 삶 속의 여성과 글 속의 여성(이은영); 4. 서거정: 여성의 삶, 자유에서 규제 속으로(김기림); 5. 김인후: 도학자의 여성인식(이혜순); 6. 신흠: 서정과 규범의 이중주(최운정); 7. 허균: ‘남성—양반’ 중심의 개혁론자(홍학회); 8. 정두경: 용부(勇婦)에 대한 찬미(남은경); 9. 송시열: 17세기 여성사의 문제적 인물(홍인숙); 10. 김창협: 여성 재현의 틀, 그리고 틈새(고연희); 11. 오원: 노론 벌열층의 여성인식(임유경); 12. 정범조: 여성에 대한 공적 태도와 사적 보상(박무영); 13. 이덕무: 여성 존재의 인식과 여성교육(최숙인); 14. 신위: 예술가의 감성으로 꽃피운 여성 인식(김경숙); 15. 유인석: 민족의 호명(呼名)과 여성(김남이)이라는 논문이 순서대로 실려 있는데, 이들은 이화여대에 적을 두었던 연구자들로, 한문학

분야에서 작금의 여성논의를 주도해가는 이들이기도 하다.

이 편저는 이혜순의 화갑을 기념하기 위해 제자들이 뜻을 모은 일종의 기획물이다. ‘그간 여성 작가와 작품, 여성화자 시, 여성 소재를 다룬 논문은 적지 아니 축적되어 왔는데,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어진 바가 없어서’(발문)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성작가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이 책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라고 하여 이 책의 의의를 밝힌 부분도 눈에 띈다. 적지 않은 고심도 보인다. 가령 ‘지금의 시점에서 자료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냐’, ‘개인적 관계에 있는 몇몇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여성 일반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냐’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논의의 결과를 통해 필자가 전반적으로 확인하게 된 바는 남성 사대부의 한계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김인후(이혜순), 정두경(남은경), 오원(임유경), 신위(김경숙)을 제외한 작가들은, 요컨대 이중적 인간들이었다. 가련하고 곁핍되어 있는 현실의 여성과 충만한 벗이요 동경의 대상이 되어 주는 허구 속의 여성 사이에 아무런 매개 고리를 두지 않았던 이규보, 남성 묘주 묘지명과 여성묘주 묘지명을 차별적으로 기술하고 여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구축하려 했던 이색, 실제의 삶에서 악녀와 음녀를 지탄하면서도 글 속에서는 坤道와 婦德을 선양했던 변계량, 예쁘고 드세고 성욕을 드러내는 여성을 경계한 대신 일심·순종·지혜의 여성상을 전범화했던 서거정, 덕녀와 색녀를 양극에 배치한 신희, 남성—양반 중심의 이중적 개혁론자 허균, 공식적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인간적 특성을 잘 포착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가문에서는 계녀서를 통해 가부장적 질서를 정립시키려 했던 송시열, 여성의 삶에 대한 애정을 지녔으면서도 남성적 덕목으로 치장했던 김창협, 공적으로는 세교의 여성상을 제시하면서도 사적으로는 여성의 고난에 대해 동감했던 정범조(제문에 나타난 사적 보상은 사실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무의식적 전략이라고 설파했던 점이 더욱 주목된다), 가정의 범주 안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간성의 긍정 경향을 보이면서도 대사회적으로는 지배층의 남성논리를 따랐던 이덕무, 민족적 필요에 따라 여성의 이름을

호명하였으나 가문 내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제한했던 유인석, 이렇게 문학사의 준결한 인물들이 여성이라는 주제의식과 만나면서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모자란’ 사람으로 지적되었다.

이중성보다는 그 틈새에 존재했던 여성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려 했던 논의도 있었다. 여성 화자를 취해 스스로 여성이 되어 보려했던, 그러므로 여성의 진실을 체험하는 주체가 되기도 했던 도학자 김인후에게서, 靜과 和가 남/녀 관계가 아닌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제시된 덕목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한 이혜순, 尙武의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여 정두경이 용감무쌍한 勇婦를 찬미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본 남은경, 규훈서와 같은 남성 시각의 글을 남기면서도 오원이 한편으로는 생동감 있는 여성을 묘사했다고 본 임유경, 예술적 소양을 지닌 女史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義의 덕목을 적용하며 따뜻한 시선을 보내었던 신위, 그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읽고 있는 김경숙, 이들의 논의가 앞의 논지와는 반대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격차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시각과 접근법이 달라서인가, 아니면 실상이 그런가? 필자는 전자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본다. 가령, 작가가 당대의 시대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긍정적 단서에 강조점을 둔다면 대부분 이혜순, 임유경과 같은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대상작가의 결핍과 미달을 찾는다면, 김인후, 정두경, 오원도 같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논의된 대로라면 신위는 달리 생각해볼 대상이다) ‘남성의 필요에 의한 여성의 수단화’란 해석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시각차에 대한 논쟁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반된 해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즈음에서, 이 책 서문에 나타난 이혜순의 고민을 다시 듣는다. 그는 작가 혹은 작품과 관련하여 ‘여성’이 분석과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여성이 일상, 사상, 문학에서 전혀 특별한 의식과 성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그는, 무의식적으로 표출한 여성관이 오히려 그들의 인품과 은밀한 내면의식 및 작품세계를 깊이 인식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풀었다. 그런데 정작 이 풀이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다. 자칫 당사자에게

없거나 경시되었던 것을 두고 그 책임을 묻는 비역사적 해석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란 자리에 ‘계급’을 두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여기서 난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다. 이해순이 말한 바, ‘여성의 문학화는 대체로 죽은 여성을 대상을 한 것이고, 살아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경계와 교화의 관점을 드러내거나 여성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남성의를 표출한 것이었다’, ‘어느 경우에도 여성은 남성의 눈을 통해 형상화되었고 이렇게 재현된 여성상은 작가마다의 큰 차이 없이 규범적이고 이상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필자 역시 동의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이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이해순은 ‘작가마다의 편차’와 ‘기존연구에서 보지 못했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해’주므로, 사대부의 여성인식을 섬세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해석에 대해 필자도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보완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남성의 여성상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과 ‘세밀한 편차’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연구자의 주관적 시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밀한’을 ‘국부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그곳에는 다시금 신랄한 비판, 혹은 비난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논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한다. 예컨대 故人の 찬양을 관례로 삼는 묘지명에서 여성 전범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감정의 진솔한 토로를 주로 담는 제문에서 私의 眞情을 재확인하는 논의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차라리 제문과 묘지명의 통시적 고찰을 시도해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당대의 문학적 관습과 일반적 관념에서 대상 작가가 어떤 미세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길 바라는 것과 유사하다. 개인적 소견을 하나 더 하자면, 필자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해석보다, 인간관계에 공히 내재된 삶의 비극과 감동이 실감나게 설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 속 다르고 겉 달랐던 사대부의 내면에 인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연민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살펴야 할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박영민이 보여준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을 살펴보자. 그는 ‘한시와 여성이 만나는 자리에 늘 심상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음을 전제로 삼

아, 문학에서 사라진 주체로서의 여성의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역사에서 배제된 타자로서의 여성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 여성을 話者 혹은 話材로 삼은 사대부 한시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목표는 여성인식과 미적 특질이 결합되어 문학사가 더욱 생동하게 되었음을 밝히는 것이었다. 한 연구자가 자신의 주제를 가지고 문학사의 흐름을 관통해나가는 모습은 그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의문이 생긴다.

첫째는 작품 해석과 설득력에 관한 문제이다. 한 예로 제2장 「고려시대, 여성인식의 유형과 기반」을 보자. 여기에는 옥면에 대한 일연의 찬사와 설요의 「반속요」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저자는 전자가 남성작가의 여성화자·화제 시로서 여성을 성불이라는 종교적 진리 내부로 끌어 들여 일종의 종교적 수단화를 기도하였다고 한 반면, 여성작가의 여성화자·화제 시인 후자는 성불의 세계 외부(즉 사람의 세계)로 도발적으로 벗어났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곁들여 과장된 해석이라는 의심을 가진다. 왜 그런가? 일연이 천한 노비인 옥면의 고행과 성불을 예찬한 것은 본디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주제를 형상화한 것이다. 거기에 옥면의 간절한 염원과 삶이 내포되어 있으며, 어쩌면 당시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여성을 위하는 원효의 진심이 삼입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종교적 신념을 위해 옥면을 이용했다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져버린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불완전한 인식이 추출된 다음 나머지는 자연히 부차화된다.

같은 장에서 든 고려시대 악부시 몇 수도 그렇다. 필자는 정몽주의 <征婦怨>이나 이규보의 <折花行>에서 각각 남편을 수자리로 보낸 아내의 아픔과 이를 바라보는 작가의 연민을 느끼고, 낭군 앞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여인의 순간적 자태를 즐겁게 바라본다. 그러나 저자의 해석은, 가족을 곳곳이 지키고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 이런 여성상을 규범화하기 위한 남성의 전략이며, 연민과 연정을 남성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여성 화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여성과 남성 어느 쪽

2) 참고로 이규보의 이 작품은 중국의 악부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기도 하다.

에도 온전하게 일치되지 않는 거리두기의 한계라고 설명하였다. 필자는 이런 해석이 부담스럽다. 여기에는 문학적 장치와 관습에 대한 고려가 희석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탈춤에서 탈을 쓰고 공연한다고 하여, 탈을 탈할 수는 없지 않은가?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저자는 왜 고려시대 사대부 남성에게서 ‘규범적 시선’(28면)을 무리하게 확인해두려고 하는가? 책의 목차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 책은 제3장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동일성의 지향」, 「제4장 조선중기, 생성을 향한 능동적 변이」, 제5장 「18세기 전반, 변환기의 여성인식」, 제6장 「18세기 후반, 여성 인식의 새로운 지평」, 제7장 「이옥, 여성의 정체성과 수동적 주체의 생산」으로 짜여져 있어서, 순차적으로 여성 인식이 발전되어 나갔음을 암시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하는 문제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점진하는 이런 구도는 무리한 해석의 귀결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정몽주, 이규보의 한시와 이옥, 김려의 한시 사이에 출렁였던 그 많은 기복들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의 바깥 저 중국에서 다가왔던 변인들도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여성에 대한 박영민의 애정은 앞으로 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더 넓은 시계와 더 많은 변인을 가지고 보다 설득력 있는 논의가 제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한편, 「고전문학 연구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낳은 쟁점들」이라는 이지양의 논문은 앞으로 여성 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문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의 질문과 대안은 이렇다. 첫째, 가부장제가 사악하기만 한 제도였던가, 아니면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 빚어낸 당연한 산물이었던가? 가부장제가 역사적으로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관점에서 그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평가해야 마땅하다. 둘째, 주역의 음양론은 여성을 비하·억압하는 논리인가? 주역에는 음양의 대등과 상호보완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준비의 과편적 이해를 지양하고 오히려 유교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양반사대부는 모두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존재인가? —김만중은, 그러므로 사대부는: 필자 요약—불합리한 제도의 기생자인 동시에 피해자(정출헌)라고 한 말은 사대부에 대한

폭언이라 생각되므로, 이런 태도와 해석보다는 작품이 속한 시대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관점을 지녀야 한다.

이지양의 쟁점 제기는 도발적일 만큼 격렬하다. 하지만 그의 질문과 답 속에는 공통적으로 ‘역사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당위가 깃들여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지금 어떤 선명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나, 현재와 과거의 시이소 관계에서 그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을 것인가, 혹은 다른 시각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남겨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여긴다.

## 5. 소품문 논의의 안팎

소품문 논의가 상승세이다. 작년에만도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안대회), 『나를 둘러다오 — 이용휴, 이가환 산문집』(안대회), 「조선후기의 명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고려대 박사논문, 김영진), 「원평도와 박지원의 문학사상 연구: 소품문을 중심으로」(성신여대 박사논문, 이우일), 「소품문 연구의 현황과 과제」(국문학연구 9, 강혜선), 「허균의 척독에 대한 일고찰」(한국한문학연구 31, 김성진), 「燕巖 尺牘小品의 문예미」(한국한문학연구 제31, 정민), 「박지원과 이덕무의 회문 교환에 대하여」(한국한문학연구 31, 심경호), 「이옥의 小品文 2」, 「許筠의 소품문」(현대시학 35, 안대회), 「이옥의 문학과 명칭소품」, (고전문학연구 23, 김영진), 「18세기 원예문화와 柳璞의 花菴隨錄」(한국시가연구 14, 정민) 등 풍성한 연구 성과가 나왔다. 편지, 선집, 박사논문, 연구사, 개별논문, 연문에 이르기까지 발표형식도 다양하였다.

본 학회에서 작년도에 강혜선이 소품문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연구사로 별론하는 것이 부적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의 견해를 참조하면서 간략히 논의를 진행시키려 한다.

강혜선이 말한 대로, ‘중세 거대담론의 자장에서 벗어나 문인들 자신의 일상을 펼쳐 보이는 다양한 삶의 결과 내면의 진솔한 소리를 특정한 격식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라는 점, 그래서 그러한 글들

이 독자에게 무엇보다도 재미의 감동을 준다는 점'(60면), '새로운 각도가 이전의 전범화된 사상과 문체가 놓치고 있는 곳에 미쳐서 그 지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낳는 것'이 소품문의 의의이다. 소품문이 그것대로 지닌 이런 의의는 지금도 유효하며, 연구가 지속되는 데는 이에 동의하는 연구자가 있어서일 것이다.

그런데 강혜선이 제기한 대로, 작년 시점에서 소품문 연구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자료의 확충, 작가 편차, 유기·척독·서발·인물전기 등의 문체별 전개양상, 언어형식(행문법) 등에 대해 연구가 진척되어야 하고, 아울러 중국문단과 국내문단의 관계(영향인자의 포괄적·실증적 탐색, 수용과정의 변화와 적용 등)가 밝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어떤 결실이 있었는가? 안대회의 활동이 보여주듯 그간의 소품문 논의를 한 데 모아 연구의 활성화를 꾀하고, 한편으로는 독서 대중에게 소품문의 재미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는 소품문이 애초 흥미와 감수성이 농후한 대상이었으므로, 이의 장점을 되살리는 긍정적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일반논문은 어떠한가? 우선 자료의 확충이 눈에 띈다. 허균 척독을 비롯하여 박지원·이덕무·이옥·유박의 소품문이 추가로 보완되어 그 소품문의 외연을 넓혔다. 다음으로, 작품론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허균 척독에 대한 김성진의 논문은, 허균이 『明尺牘』을 편찬하고 주지번과 교류하는 동안, 의고문과 소품문을 변별적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척독소품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논의는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면서, 공간과에 집중하는 연구관행을 얼마간 시정하게 되었다는 점, 국내 소품문의 시대와 범위 문제를 제기했다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소품문의 작법에 대한 고찰이 병행되었다. 정민이 보여준 예들, 특히 「燕巖尺牘小品의 문예미」는 연암 척독의 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수사적 장치를 분석하고 있어서 이 분야 작품론의 선례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작년 소품문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바는 이우일과 김영진의 박사논문이다. 먼저 이우일은, 소품문을 중심으로 원평도와 박지원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런데 논의가 전반적으로 기존연구의 성과를 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제2장 「원굉도와 박지원의 사상」은 기존논의를 종합하였으며, 제3장의 「문학관」 부분도 그렇다. 이중 원굉도 문학의 수용과 관련하여, 허균, 김석주, 김창협, 이용휴, 박지원, 이덕무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김석주 이후는 이미 안대회 등이 밝힌 바를 다시 반복한 데 지나지 않는다. 허균의 사례를 실증할 수 있었다라면 혹 기여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어떤 자료나 해명이 없다. 요컨대, 비교 대상의 선정과 연구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새로운 자료, 접근법이 없이 기성논의를 개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의욕에 상응하는 결실을 거두기 어려운 셈이다.

김영진의 사례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다. 그는 지난 수년간 소품문 관련 자료를 찾는 데 힘을 경주하였고, 틈틈이 이를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그동안의 이런 노력이 한 데 모인 것이다. 그래서 자료의 확충과 실증면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가령 제3장의 「조선후기의 명청소품 수용 양상」에는, 조선후기 문인들(이용휴, 유만주, 박지원, 이덕무, 이옥, 윤덕희, 황윤석)의 명청소품 독서에 관한 자료가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안파·경릉파·김성탄(『수호전』과 『서상기』의 비평)·『우초신지』·총서 등이 국내문인에게 열독되는 실재를 물증을 가지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문은 소품문의 사적 흐름에 대한 조망, 미적 장치와 미의식에서 진일보한 견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제4장에서 「18-9세기 초 소품문의 전개양상」이라는 절을 두었지만, 일관된 시각과 기준에 따라 사적 흐름을 조망했다기보다는 소품문의 등장 과정을 포착된 사실 대로 진술하거나, 몇몇 작가와 그에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는데 머무르고 만 것이다. 폭넓고 꼼꼼한 자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 소품문의 미학적 의의, 작가마다의 편차와 특징, 당대의 문화지형에서 소품문이 지니는 의의가 충족되지 못한 셈이다. 첨언하자면, 소품문에 대한 자기 대로의 명확한 개념에 기초해서, 앞으로 못 다 채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기를 바란다.

이상의 소품문 관련 연구사를 개략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서 필자 자신에게 되돌아온 화두는 왜 근래의 많은 연구자들이 소품문과 그 연구에 매

료되는가였다. 한편에서는 여성학자들이 이 불합리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을 시대의 주제로 삼고 있지만, 소품문의 경우는 개인의 취향을 중심에 두는,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대상들이다. 혹, 민족과 현실을 논제로 삼아 육중한 문제의식에 집중했던 앞 시대의 연구,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연구사가 ‘잠시’ 무게를 벗어두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추측과, 연구사의 공백에 이 만큼 큰 덩어리가 드물었기에 이를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상이한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소품문이 문학사에 등장했던 바로 그 시대에도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시대의 문제에 대면하려고 했던 지식인과 그들이 남긴 저작들이 많았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 6. 결론

2003년도 ‘한 해’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다 보니, 충분히 논의함직한 성과를 외면하게 된 것도 있고, 아울러 거시적 시야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논의가 소홀해졌다는 반성이 든다. 진자의 경우, 지방문학에 관한 논의(조동일의 『지방문학사 : 연구방향과 과제』, 최재남의 『경남문학의 원류와 자랑』 등), 비교연구 등, 현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과제들이 더 남아 있었다.

학자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지, 또한 거시적 시야에서 한문학 연구가 장차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필자가 함부로 운위할 바가 못 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문에 종사하는 누구라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연구사에서 이와 관련된 몇 사람의 지적이 눈에 들어와 필자에게 칼로 찌르는 듯한 충격을 다시 주었다. ‘해석’의 부실함과 자의적 왜곡 경향, 자료에 대한 충실성을 빌미로 문제의식의 부족을 가리려는 경향이 모두 한국학의 인문학적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말이나(박희병, 『문화와 근대』 서문), 현재의 글이 자신의道を 찾지 못해 누구의 글이 누구의 글인지를 모르는 복제품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이종목, 「한시연구의 회고와 전망」) 정작 필자 자신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1세기 환경에서 한문학의 존재와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들어 볼 수 있었다.(임형택, 「한국 한문학의 20세기와 21세기」) 一國霸道가 발호한 불행한 시대이자 지식정보화와 세계화가 유례없이 급진하는 이 시대에, 한문학은 과연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임형택은 이에 대해, 학과의 제약을 풀고 한문학을 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시소설 중심의 문학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文史哲의 재결합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생활사적 관심과 문화론적 해석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 문학순수주의를 고집하지 말고 실용적 가치의 창출에도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것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런 견해가 과연 어떤 합의와 영향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위기요, 이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무엇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래서 다음 해에 혹 2004년도 연구사를 정리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 중에서 우리의 전망을 담아 낼 수 있는 많은 성과가 담겨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참고문헌

## &lt;단행본&gt;

-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 고미숙, 『열하일기 — 유쾌한 웃음과 역설의 시공간』, 그린비, 2003.
- 권오영, 『조선 후기 유럽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 金相洪, 『茶山 文學의 再照明』, 단국대학교출판부, 2003.
- \_\_\_\_\_, 『朝鮮朝 漢文學의 照明』, 이회문화사 2003.
- 김세현, 『韻詩四十年』, 如松, 2003.
- 김영호, 『다산의 논어 해석 연구』, 심산출판사, 2003.1.
- 김인철, 『다산의 주역 해석 체계』, 경인문화사, 2003.4.
- 김종철, 『한문 운문문체의 이해와 분석』, 淸文閣, 2003.
- 박성규, 『고려후기 사대부문학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4.
- 박수진, 『韓國漢詩批評의 研究』, 태학사, 2003.
- 박영민 외, 『한국한시와 여성인식의 구도』, 소명출판, 2003.
- 박영민·정출현·이형대·조현실,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 박희병, 『문화와 근대 : 최한기 사상에 대한 음미』, 돌베개, 2003.
-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4.
- \_\_\_\_\_, 『한학연구입문』, 이회, 2003.4.
- 안대회 편, 『조선후기 小品文의 실체』, 태학사 2003.
- 柳在日, 『韓國 漢詩의 探究』, 以會文化社, 2003.
- 이돈주, 『한중한자음 연구』, 태학사, 2003.
- 이민홍, 『한문화와 한문학의 정체성』, 집문당, 2003.
- 李炳赫 編, 『麗末鮮初 漢文學의 再照明』, 태학사, 2003.
- \_\_\_\_\_, 『高麗末 性理學 受容과 漢詩』, 태학사, 2003.
- 이혜순 외,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 인식』, 집문당, 2003.
- 정 민,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 1·2권, 효형출판, 2003.
- 조용희, 『조선 중기 한시 비평론』, 한국문화사, 2003.
- 仲井健治 著 ; 許米子 譯, 『(일본인이 본)허난설현 한시의 세계』, 국학자료원, 2003.
- 차용주, 『한국위향문학작가연구』, 경인문화사, 2003.
- \_\_\_\_\_, 『한국한문소설사(개정증보)』, 아세아문화사, 2003.

최재남, 『경남문학의 원류와 자장』,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3.

한국문화연구원 편, 『국문학 연구 50년』, 해안, 2003.

한국한문학회 편, 『한국한문학과 미학』, 태학사, 2003.

#### <역서·자료>

권문해 저,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연구회 역주, 『대동운부군옥』 1-10, 소명출판, 2003.

김동욱 편역, 『옛 문인들의 붓끝에 오르내린 고려시, 1 : 고려전기 편』, 月印, 2003.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연구회 역주, 『대동운부군옥』 1-10 / 권문해 저 ; 소명출판, 2003.

박성규, 『김극기 한시선』, 다운샘, 2003.4.

손종섭, 『다시 옛 詩情을 더듬어 : 한국 역대 漢詩 평설』, 태학사 2003.

송일기·노기춘 엮음,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第1-2冊, 태학사, 2003.

송재소, 『몸은 곤궁하나 시는 썩지 않네 : 옛 시인들을 만나 인생을 논하다』, 한길사, 2003.

안대회 역, 『북학의 : 조선의 근대를 꿈꾼 사상가 박제가의 개혁 개방론』, 돌베개, 2003.

안대회, 『나를 둘러다오 — 이용휴, 이가환 산문집』, 태학사, 2003.

안동환 역주, 『한·중 한시 150수 이해』,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어운필, 성범중, 최재남 공역, 『역주 목은시교』 5-6, 월인, 2003.

이혜순, 정하영 공역편, 『한국 고전 여성문학의 세계 : 散文篇』,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蔡夢弼 集錄, 이의강 교감·역주, 『杜工部草堂詩話』, 다운샘, 2003.

홍석모 편, 진경환 역, 『서울 세시 한시』, 보고서, 2003.

#### <학위논문>

정순영, 「삼국유사의 허사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2003.2.

강국주, 「연암문학과 ‘죽음’의 형상화 방식」, 서울대 석사논문, 2003.

강병문, 「<청구야담>의 결연담 연구: 결연양상과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2

강서형, 「매창 한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3.

高 銀, 「士大夫 自傳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2002.12.

곽정례, 「악록 허성의 한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3.

권경록, 「19세기 학시론 연구:홍석주와 김정희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03.

- 권춘희, 「유호인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3.
- 김기중, 「『동호거실』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김동석, 「『수사록』 연구 : 『열하일기』와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3.
- 김동준, 「해암 유경종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3.
- 김명환, 「국포 강박의 문학론」, 경북대 석사논문, 2003.
- 김소야자, 「17·18세기 한문단편과 우키요조시(浮世草子) 비교연구:치부와 성애 모티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김수경, 「다산 시경학에 있어서의 흥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3.
- 김영죽, 「저촌 이정섭 한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김영진, 「조선후기 만명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3.
- 김은경, 「허균 '전' 연구」, 강릉대 석사논문, 2003.
- 김인정, 「허난설헌의 한시연구:위작시비 및 작품 재해석에 주안하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전웅, 「백호 임제의 시문학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2003.
- 김정인, 「16세기 사림의 기문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3.
- 김정일, 「조선후기 여향인물전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2003.
- 김종성, 「미암 유희춘의 한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준형, 「조선조 패설문학 연구:골계류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03.
- 김진미, 「목은 이색 序跋文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2.
- 김진욱, 「송강 정철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3.
- 김현주, 「도은 이승인의 시문학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2003.
- 김희정, 「허난설헌 한시의 소재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남재철, 「이서구 시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3.
- 남춘우, 「식산 이만부의 시세계」, 계명대 석사논문, 2003.
- 노승석, 「『식우집』 역주 :권사·보유소제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류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 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 박사논문, 2003.
- 박동환, 「둔촌 이집의 시문학 연구: 교유시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박록자, 「남명 조식의 시문 연구:「편년」을 중심으로」, 인제대 석사논문, 2003.
- 박상근, 「봉래 양사언의 삶과 시세계」, 부산대 석사논문, 2003.
- 박성자, 「환성 지안의 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3.

- 서현도, 「김삿갓의 삶과 시에 나타난 삿갓의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고원대 석사논문, 2003.
- 손여림, 「고려시대 여성묘지명 연구: 여성생활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3.8.
- 손왕호, 「백하 윤순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3.
- 신기태, 「百聯抄解의 성립과정과 형식, 내용적 특징」,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2.
- 양동대, 「학포 양팽손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3.
- 양수진, 「별동 윤상의 한시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양승민, 「17세기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 박사논문, 2003.
- 김정기, 「퇴계의 「시석의」 연구:퇴계적 「시석의」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유이경, 「이곡의 說 작품 연구: 說 장르 성격 규명을 위한 예비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3.2.
- 유호선, 「17C 後半~18C 前半 京華士族의 佛敎受容과 그 詩的 形象化: 金昌翁, 崔昌大, 李德壽, 李夏坤, 趙龜命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03.
- 윤상림, 「익재 이제현의 詩, 文의 서술방식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3.2.
- 윤재환, 「매산 이하진 시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3.
- 윤태식, 「호산 조희룡의 『호산외기』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03.
-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시문과 그 성격」,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3.
- 이민복, 「雙梅堂 李詹의 詩世界」,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8.
- 이여추, 「中·韓 妓女詩人 薛壽와 李梅窓의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 이우일, 「원굉도와 박지원의 문학사상 연구: 소품문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3.8.
- 이원걸, 「김종직 시문학의 한 연구 :풍교의식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3.
- 이정화, 「퇴계시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3
- 이한재, 「아계 이산해의 시 연구: 유배시를 중심으로」,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임무화, 「임춘 시의 한 연구 :비에조의 한시를 중심으로」, 안동대 석사논문, 2003.
- 임선희, 「<담요신화>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군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2.
- 장명덕, 「윤고산 문학연구 :풍요의 미학을 중심으로」, 원광대 박사논문, 2003.
- 정민, 「이성선 시의 정신 세계」, 충북대 석사논문, 2003.

- 정의영, 「『삼한습유』 연구」, 대구대 박사논문, 2003.
- 정진성, 「쌍백당 임광택 한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조영미, 「청허 휴정의 선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3.
- 조창록, 「풍석 서유구에 대한 한 연구: '임원경제'와 『번계시고』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성
- 조태성, 「초의선사의 시문학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03.
- 최경열, 「『청성잡기』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최광범, 「고려말 한시 풍격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3.
- 최영옥, 「백곡 김득신 문학론의 성격」,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최영희, 「龜峰 宋翼弼 詩의 心象과 靜의 문제」, 고려대 석사논문, 2003.8.
- 최지녀, 「조선시대 여성서간과 서간체문학」, 서울대 석사논문, 2003.
- 한 매, 「조선 후기 김성탄 문학비평의 수용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3.
- 한성금, 「허난설헌의 한시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2003.
- 황수정, 「매천 황현의 전기 연구」, 순천대 석사논문, 2003.

<정기간행물>

- 강석근, 「孤雲 崔致遠의 佛敎詩 再論」, 『孤雲學報』 창간호, 고운학회, 2003.
- 姜哲中, 「『十鈔詩』의 中國詩 選詩 樣相 一考」,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學會, 2003.
- \_\_\_\_\_, 「홍석주(洪奭周)의 『학강산필(鶴岡散筆)』에 나타난 문학관에 대하여」, 『韓國學論集』 제37집, 漢陽大學校韓國學研究所, 2003. 10.
- 姜賢敬, 「鷄籠山 遊記에 대한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31, 한국한문학회, 2003.6.
- 姜慧仙, 「金尙容의 생애와 한시 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_\_\_\_\_, 「소품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문학연구』 제9호, 국문학회, 2003.
- \_\_\_\_\_, 「沈能淑 한시 연구」,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學會, 2003.
- 고연희, 「'문자향' '서권기', 그 함의와 형상화 문제」, 『美術史學研究』 제237호, 韓國美術史學會, 2003. 3.
- \_\_\_\_\_, 「17세기 男性의 女性再現 : 김창협 의 여성 애제문을 중심으로」,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2호, 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2003.2.
- \_\_\_\_\_, 「瀟相八景, 고려와 조선의 詩·畵에 나타나는 受容史」, 『東方學』 제9집, 韓瑞大學校 附設 東洋古典研究所, 2003.12.
- \_\_\_\_\_, 「신위(申緯)의 회화관과 19세기 회화」, 『韓國學論集』 제37집, 漢陽大學校韓國學研究所, 2003.10.

- 곽정식, 「〈과재우전〉과 〈과장군전〉의 비교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제17집, 동양한문학회, 2003.4.
- 구분현, 「大山 吳昌烈의 시론과 시세계」, 『국문학연구』 제9호, 국문학회, 2003.
- \_\_\_\_\_, 「車天輅의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權五雄, 「肅宗 詩 研究」, 『漢文學研究』 제17집, 啓明漢文學會, 2003.2.
- 權鎭浩, 「溪村 李道顯의 讀書論과 古文論」, 『大東漢文學』 제18집, 大東漢文學會, 2003.6.
- \_\_\_\_\_, 「계촌 이도현의 독서론과 고문론」, 『대동한문학』 제18집, 대동한문학회, 2003.
- 金乾坤, 「高麗時代의 古文 意識」, 『漢文學研究』 17, 啓明漢文學會, 2003.2.
- 金南伊, 「殺崙 柳麟錫의 民族自尊論과 여성 인식」, 『大東漢文學』 제18집, 大東漢文學會, 2003.6.
- 金呂珠, 「朝鮮後期 女性文學研究 III」,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 12.
- 金相洪, 「草衣禪師의 茶山學 繼承 攷」, 『東洋學』 제33집,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3. 2.
- 金聲振, 「許筠의 尺牘에 대한 一考察」, 『韓國漢文學研究』 31, 한국한문학회, 2003.6.
- 金英珠, 「昆侖 崔昌大의 修辭論 研究」, 『東方漢文學』 24, 동방한문학회, 2003.6.
- 金鍾喆, 「『東文選』 편찬체제의 選文學의 類型性과 그 의미」, 『東方漢文學』 24, 동방한문학회, 2003.6.
- 金學堃, 「李忠翊의 『椒園談老』 研究」, 『인천학연구』 제2—2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12.
- 김 영, 「한·중 寓言의 욕망 구현 양상」, 『韓國漢文學研究』 31, 韓國漢文學會, 2003.6.
- 김 범, 「조선전기 '훈구·사림세력' 연구의 재검토」, 『韓國史學報』 제15호, 고려사학회, 2003. 9.
- 김기립, 「서거경 여성 인식과 그 의미」, 『문학과언어』 제25집, 文學과言語學會, 2003. 5.
- 김남기, 「李春英의 삶과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_\_\_\_\_, 「조선왕실과 온양온천」, 『문헌과 해석』 23, 2003. 여름.
- 김남형, 「星湖 李翼의 戲謔詩와 寓話詩」, 『한문학 연구』 17집, 계명한문학회, 2003.
- 金德秀, 「澤堂 李植의 詩世界」,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學會, 2003.

- 김동률, 「艸衣의 茶詩와 禪意識」, 『崇實語文』 제19집, 승실어문학회, 2003. 6.
- 金東俊, 「睡隱 姜沆의 삶과 시」,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_\_\_\_\_,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에 대한 재론」, 『국문학연구』 제10호, 국문학회, 2003.
- \_\_\_\_\_, 「海巖 柳慶種의 論詩詩 研究」,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學會, 2003.
- \_\_\_\_\_, 「李用休 漢詩의 理智的 性向과 새로운 詩的 型式」, 『震檀學報』 제95호, 震檀學會, 2003.6.
- 김명호, 「朴珪壽의 宮詞 「鳳韶餘響」 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31집, 한국한문학회, 2003.
- 김문식, 「이하곤의 대외인식」, 『문헌과 해석』 25, 2003. 겨울.
- 김보경, 「고려후기 주역 인식의 특성과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12.
- 김석태, 「연담 유일의 한시 고찰: 시적 형상화의 개방성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11, 한국고시기문학회, 2003.
- 김성룡, 「고려중기 禪 사상과 문학 사상의 관련 양상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12.
- 김수현, 「寄軒 金琦 研究」, 『고전문학연구』 24집, 2003.
- 김순미, 「『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판본고」, 『동양한문학연구』 제17집, 동양한문학회, 2003.4.
- 김승호, 「고려 佛家의 自傳의 글쓰기와 그 양상: 書信 및 碑銘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6.
- 김영진, 「李鈺 문학과 明清小品」, 『古典文學研究』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6.
- \_\_\_\_\_, 「青城과 靑莊館의 교유」, 『青城雜記』, 『문헌과 해석』 22, 2003.봄.
- 김우정, 「崔笠 古文辭의 性格에 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12.
- 김원준, 「芝峯 使行詩의 一考察 : 異景에 나타난 芝峯意識」, 『韓民族語文學』 제42호, 韓民族語文學會, 2003.6.
- 金垠廷, 「蘭雪軒의 삶과 다양한 공간의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_\_\_\_\_, 「張維의 雜體詩 연구」,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學會, 2003.
- \_\_\_\_\_, 「정홍명의 생애와 시문학 세계」, 『국문학연구』 제10호, 국문학회, 2003.
- \_\_\_\_\_, 「『五子詩』 창작배경 및 和答詩 연구」, 『震檀學報』 제96호, 震檀學會, 2003.12.
- 金鍾西, 「16세기 湖南詩壇과 三唐詩人」,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學會,

2003.

- 김종철, 「한국 選文學 편찬체제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대동한문학』 제18집, 대동한문학회, 2003.
- 김진경, 「圓齋 鄭樞 詩世界 研究: 意識志向과 美的 特質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 김창호, 「任叔英 詩文의 研究」, 『한국어교육』 제18호, 한국어문교육학회, 2003.
- 김태환, 「高峰 기흥설의 미학적 의미: 興의 미적 본질 문제」, 『정신문화연구』 90호, 2003.
- 김풍기, 「묘오(妙悟): 깨달음의 형식과 선시의 세계」, 『유심』 통권12호, 만해사 상실천선학회, 2003년 봄.
- 김혜숙, 「율곡 시의 道 음영방식과 心狀, 美感」, 『고전문학연구』 24집, 2003.
- 김홍영, 「海洲 南鵬의 퇴계시 주해와 그 의미: 『雲陶正音註解』의 해제를 곁하여」, 『한문학 연구』 17집, 계명한문학회, 2003.
- 노경희, 「月沙 李廷龜 한시 연구」,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노인숙, 「면암 최익현 사상 연구」, 『청람어문교육』 제2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1.
- \_\_\_\_\_, 「백옥헌 이개 한시 연구」, 『한국어문교육』 제12집, 한국교원대학교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3.2.
- 류근안, 「태재시에 나타난 자연의 공간적 의미연구」, 『국어국문학』 134, 국어국문학회, 2003.9.
- 柳晟俊, 「申緯와 王維 詩의 神韻味와 繪畫技法 比較考」, 『中國學研究』 제26집, 中國學研究會, 2003.12.
- 박동주, 「남극관의 생애와 저술」, 『문헌과 해석』 23, 2003. 여름.
- 朴明姬, 「順天 松廣寺 간행 고승문집 연구」, 『東方漢文學』 24, 동방한문학회, 2003.6.
- \_\_\_\_\_, 「지역전통의 형성과 누정문학의 전개: 全南 長城郡 黃龍面 소재 邀月亭을 중심으로」, 『韓國言語文學』 제51집, 한국어언어학회, 2003.12.
- 박무영, 「睡餘三筆'의 문학적 사유」, 『열상고전연구』 제17집, 열상고전연구회, 2003.
- \_\_\_\_\_, 「18세기 祭亡室文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12.
- 박문열, 「이하곤의 저술들」, 『문헌과 해석』 25, 2003. 겨울.
- 박상국, 「유럽 소재 한국 고문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제18집, 대동한문학회, 2003.
- 박성규, 「고려후기 사대부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박수천, 「象村 申欽의 한시 문학」,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박순남, 「고려말 지식인의 『소학』 수용에 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제17집, 동양한문학회, 2003.4.
- 박영민, 「18세기 한시에 나타난 여성정감의 미적 특질」, 『한국한문학과 미학』, 태학사, 2003.
- 박영민, 「姜澁雲, 名妓의 내적 성찰과 悲憤의 서사」, 『우리어문연구』 20, 우리어문학회, 2003.
- \_\_\_\_\_, 「시화의 기생한시 담론과 심미의식」, 『한문교육연구』 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 박우훈, 「玄山 李玄圭의 生涯와 交遊」, 『인문학연구』 제30권 제2호 통권62호, 忠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2003.12.
- 박우훈·이영휘·이향배, 「19세기 이후 대전·충남지역 漢詩會 활동 조사연구」, 『語文研究』 제41권, 語文研究學會, 2003.4.
- 朴俊圭, 「光州·全南地域의 樓亭調査와 鄭澈의 樓亭題詠」, 『어문논총』 제3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3.6.
- 朴浚鎬, 「晚學堂 裨尙瑜의 文學世界」, 『漢文學研究』 17, 啓明漢文學會, 2003.2.
- 朴熙秉, 「崔漢綺 사상에 있어서 自然과 人爲의 관계」, 『大東文化研究』 42, 2003.6.
- \_\_\_\_\_, 「'병신'에의 시선—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집, 2003.
- 부영근, 「『因海錄』의 한 국면」, 『한문학 연구』 17집, 계명한문학회, 2003.
- 서인원, 「이계 홍량호의 실학사상」, 『韓國學論集』 제37집, 漢陽大學校韓國學研究所, 2003.10.
- 成範重, 「〈將進酒〉 계열 작품의 시적 전승과 변용」,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學會, 2003.
- \_\_\_\_\_, 「石洲 권필의 삶과 시」,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손정인, 「〈都彌傳〉의 인물형상과 서술방법」, 『어문학』 제80호, 한국어문학회, 2003.6.
- 손정희·정무룡, 「삼국시대 열녀형 설화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제17집, 동양한문학회, 2003.4.
- 孫惠莉, 「『青城雜記』에 대한 일고찰」, 『東方漢文學』 24, 동방한문학회, 2003.6.
- \_\_\_\_\_, 「青城 成大中の 문학론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22, 2003.봄.
- 宋載邵, 「性理學派 文學과 實學派 文學의 連續과 斷絶: 茶山과 燕巖을 中心으로」, 『泰東古典研究』 19, 2003.6.
- \_\_\_\_\_, 「난설헌(蘭雪軒) 허씨(許氏)의 시」, 『시와시학』 통권51호, 시와시학사,

- 2003년 가을.  
 \_\_\_\_\_,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의 시」, 『시와시학』 통권50호, 시와시학사, 2003년 여름.
- \_\_\_\_\_ , 「性理學과 實學思想」, 『淡水』 제32집, 淡水會, 2003.10.
- \_\_\_\_\_ , 「性理學派 文學과 實學派 文學의 連續과 斷絶 : 茶山과 燕巖을 中心으로」, 『泰東古典研究』 제19집, 翰林大學校 泰東古典研究所, 2003.6.
- \_\_\_\_\_ ,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시」, 『시와시학』 통권49호, 시와시학사, 2003년 봄.
- \_\_\_\_\_ , 「畢齋 金宗直 문학 연구의 몇 가지 문제」, 『大東文化研究』 제44집, 成均館大學校동아시아학술원大東文化研究院, 2003. 12.
- 송혁기, 「18세기 초 散文理論의 전개양상 일고: 李宜顯·申維翰·趙龜命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1, 한국한문학회, 2003.6.
- 신복호, 「徐命膺의 文章論」, 『민족문화연구』 3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6.
- 신상구, 「『동경대전』 소재 수운 한시 연구」, 『대동한문학』 제18집, 대동한문학회, 2003.
- 辛承云, 「한국문집 정리의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 제2호, 한국국학진흥원, 2003년 봄·여름.
- 신승훈, 「미수 허목 육경학의 시의성과 실제적 적용의 양상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제17집, 동양한문학회, 2003.4.
- 신연우, 「『陶山雜詠』과 『陶山十二曲』에서의 '興」, 『국어국문학』 제133호, 국어국문학회, 2003.5.
- \_\_\_\_\_ , 「이황 문학에서 '疾病'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18집, 열상고전연구회, 2003.12.
- \_\_\_\_\_ , 「李滉 山水詩의 양상과 物我一體의 논리」, 『韓國思想과文化』 제20집, 韓國思想文化學會, 2003.6.
- 신익철, 「근대문학 형성기 下榮晩의 사상적 지향과 문학세계」,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12.
- 沈慶昊, 「박지원과 이덕무의 戲文 교환에 대하여 :박지원의 『산해경』 東荒經 補經과 이덕무의 注에 나타난 지식론의 문제와 훈고학의 해학적 전용 방식, 그리고 적독 교환의 인간학적 의의」, 『韓國漢文學研究』 제31집, 韓國漢文學會, 2003.6.
- \_\_\_\_\_ ,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의 한국한문학에 나타난 실학적 특성에 관한 일 고찰」, 『韓國實學研究』 제5호, 韓國實學學會, 2003.6.
- \_\_\_\_\_ , 「기흥(起興)과 비유(比喻)」, 『현대시』 통권157호, 한국문연, 2003.1.

- \_\_\_\_\_, 「일본 소재 한국 고문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제18집, 대동한문학회, 2003.
- \_\_\_\_\_, 「작가의 위상」, 『현대시』 통권158호, 한국문연, 2003.2.
- 安大會, 「조선후기 自撰墓誌銘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31, 한국한문학회, 2003.6.
- \_\_\_\_\_, 「이덕무 소품문의 미학」, 『고전문학연구』 24집, 2003.
- \_\_\_\_\_, 「李鈺의 小品文,2」, 『現代詩學』 제35권 8호 통권413호, 現代詩學社, 2003.8.
- \_\_\_\_\_, 「조선후기 自撰墓誌銘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제31집, 韓國漢文學會, 2003.6.
- \_\_\_\_\_, 「許筠의 소품문」, 『現代詩學』 제35권 9호 통권414호, 現代詩學社, 2003. 9.
- 안순태, 「玄谷 趙緯韓의 삶과 문학」,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安章利, 「『東文選』의 選文意識에 나타난 문학의 개념과 가치」, 『國際語文』 제29집, 국제어문학회, 2003.12.
- \_\_\_\_\_, 「姜希孟의 生涯와 文學」, 『열상고전연구』 제18집, 열상고전연구회, 2003.12.
- 양태순, 「三灘 李承召의 忠北 題詠」, 『湖西文化論叢』 제17권, 西原大學校湖西文化研究所, 2003.2.
- \_\_\_\_\_, 「상촌 신희 시조의 표현 미학」, 『인문과학연구』 제12호, 서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3.2.
- 엄경흠, 「聘禮와 使行詩—明 使行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17집, 동양한문학회, 2003.4.
- 여운필, 「『牧隱詩藁』의 사료적 가치」, 『신라대학교論文集』 제52집, 신라대학교, 2003.2.
- \_\_\_\_\_, 「蒼石 李垞의 교유시의 한 양상」,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禹應順, 「16세기 畿湖士林派의 형성과 그 문학적 지향」, 『韓國漢文學研究』 31, 한국한문학회, 2003.6.
- \_\_\_\_\_, 「張維의 陽明學的 世界觀과 詩世界: 安山 寓居 시절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 유영봉, 「몇 개의 頻出詩語로 본 崔致遠의 詩」, 『孤雲學報』 장간호, 고운학회, 2003.
- \_\_\_\_\_, 「草廬 李惟泰의 시세계」, 『한국한문학연구』 31집, 한국한문학회, 2003

- 윤재민, 「국내 소재 한국 고문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제18집, 대동한문학회, 2003.
- 尹載煥, 「剡溪 詩를 통해 본 挫折과 憂患意識」,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學會, 2003.
- 윤재근, 「16·17세기 漢文學의 美學的 變貌 樣相에 대한 연구」, 『한국한문학 연구』 31집, 한국한문학회, 2003.
- 이경수, 「鄭華의 생애와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이동근, 「傳 樣式的 歷史的 展開樣相」, 『우리말글』 제29집, 우리말글학회, 2003. 12.
- 이동재, 「梅溪 曹偉의 詩文學 研究」, 『東岳漢文學論集』 11집, 동악한문학회, 2003.
- 이동환, 「〈雙女墳記〉의 작자와 그 創作背景」, 『민족문화연구』 3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이병찬, 「韓·中 詩經論의 問題點과 再認識 : 楚簡本 『詩經』 關聯資料에 根據하여」, 『語文 研究』 제42권, 『語文研究學會』, 2003.8.
- \_\_\_\_\_, 「〈東野彙輯〉의 작품 수용 양상 연구, II : 〈記聞叢話〉를 중심으로」, 『洋橋語文研究』 제15집, 『洋橋語文學會』, 2003.8.
- 李秉然, 「朝鮮前期 疎外官人의 隱居生活 : 金安國·金正國의 경우」, 『歷史教育論集』 제31집, 『歷史教育學會』, 2003.8.
- 이상주, 「이하곤의 예술사적 위상」, 『문헌과 해석』 25, 2003. 겨울.
- 李相夏, 「梅月堂 金時習의 心儒跡佛 再考」, 『漢文學研究』 17, 『啓明漢文學會』, 2003.2.
- 이성혜, 「凌虛 朴敏의 학문과 사상」, 『남명학연구』 15, 2003.6.
- 이숙희, 「許蘭雪軒과 金浩然齋의 詩世界」, 『한문교육연구』 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 이순구, 「미국 소재 한국 고문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제18집, 대동한문학회, 2003.
- 이승수, 「〈三韓拾遺〉의 기술 방식 세 가지」, 『古小說研究』 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6.
- \_\_\_\_\_, 「17세기 후반 지식인의 邵雍·陸九淵·陳亮 수용 양상 연구 : 拙修齋와 三淵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1권 4호 통권120호, 『韓國語文教育硏究會』, 2003 겨울.
- \_\_\_\_\_, 「西堂 李德壽의 對淸觀」, 『韓國思想과 文化』 제20집, 『韓國思想文化學會』, 2003.6.
- \_\_\_\_\_, 「深河 戰俊과 金將軍傳」, 『韓國文學研究』 제26집, 『東國大學校韓國文學研

- 究所, 2003.12.
- 이신성, 「서포 김만중의 남해시대와 『서포만필』」, 『東洋漢文學研究』 17, 동양한문학회, 2003.
- 李英徽, 「牧隱 李穡의 賦 研究」, 한국어문학연구 제4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2.
- 이은주, 「19세기 표해록의 모습과 변모양상」, 『국문학연구』 제9호, 국문학회, 2003.
- \_\_\_\_\_, 「石樓 李慶全의 삶과 시」,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이정신, 「李鈺의 <蜘蛛賦> 考察」, 한국언어문화 제2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12.
- 李鍾默, 「白湖 林悌 漢詩의 文藝美學」, 震檀學報 제96호, 震檀學會, 2003. 12.
- \_\_\_\_\_, 「장서각 및 수집 고문서 자료의 정리실태와 전망」, 국학연구 제2호, 한국국학진흥원, 2003. 봄·여름.
- \_\_\_\_\_, 「漢詩 研究의 回顧와 展望」, 大東漢文學 제19집, 大東漢文學會, 2003.12.
- \_\_\_\_\_, 「남구만 집안과 용인 비파담」, 『문헌과 해석』 23, 2003. 여름.
- \_\_\_\_\_, 「成輅의 삶과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_\_\_\_\_, 「신흥과 가현산」, 『문헌과 해석』 25, 2003. 겨울..
- \_\_\_\_\_, 「홍양호와 삼각산 우이동」, 『문헌과 해석』 24, 2003. 가을.
- 이종문, 「金之岱의 生涯와 詩世界」, 『한문학 연구』 17집, 계명한문학회, 2003.
- 李知洋, 「고전문학 연구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낳은 쟁점들 :가부장제·『주역』의 음양론·열녀·양반사대부」, 민족문학사연구 제22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3. 6.
- 이진성, 「서포 김만중의 남해 시기와 『서포만필』」, 『동양한문학연구』 제17집, 동양한문학회, 2003. 4.
- 이진오, 「조선조 불가한문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韓國民族文化 22, 釜山大學校韓國民族文化 文化研究所, 2003. 10.
- 이택동, 「韓國漢詩의 分析的 研究 :三唐詩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권 4호 제2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12.
- 이현구, 「최한기 사상의 인식론적 의의」, 『대동문화연구』 제4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 이현일, 「申緯의 『焚餘錄』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 12.
- \_\_\_\_\_, 「자하 신위와의 대화」, 『문헌과 해석』 23, 2003. 여름.
- \_\_\_\_\_, 「조선후기 고동완상의 유행과 紫霞詩」, 『韓國學論集』 제37집, 漢陽大學

- 校韓國學研究所, 2003. 10.
- 李炫知, 「朱溪君 李深源의 삶과 시세계」,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學會, 2003.
- 인권환, 「고려 禪詩와 日本 五山詩의 比較 研究」, 『한국한문학연구』 제31집, 한국한문학회, 2003
- 임주탁, 「許筠論」,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임형택, 「21세기에 다시 읽는 실학」, 『大東文化研究』 제42집,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2003. 6.
- \_\_\_\_\_, 「『大東韻府群玉』의 역사적 기원과 위상」,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 12.
- \_\_\_\_\_, 「한국한문학의 20세기와 21세기」, 大東漢文學 제19집, 大東漢文學會, 2003. 12.
- 장경남, 「〈山城日記〉의 서사적 특성연구」, 『고전문학연구』 24집, 2003
- 장미경, 「壬亂 被虜者의 捕虜體驗 漢詩研究: 鄭希得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 장유승, 「水色 허적의 의고적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_\_\_\_\_, 「朝鮮時代 科體詩 研究」,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學會, 2003.
- 전경원, 「다산(茶山) 정약용의 시경론(詩經論) 및 시의식(詩意識) :〈관저(關雎)〉장(章)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30집, 겨레어문학회, 2003. 4.
- 全百燦, 「松穆館 李彦瑱의 作家意識: 衡齋居室을 중심으로」, 『漢文學研究』 17, 啓明漢文學會, 2003.2.
- 전일우, 「『燕輶直指』 研究」, 崇實語文 제19집, 송실어문학회, 2003. 6.
- 정 민, 「18세기 지식인의 玩物 취미와 지적 경향: 『鶉鷓經』과 『綠鸚鵡經』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3집, 2003.
- \_\_\_\_\_, 「『東槎餘談』에 실린 이언진의 필담 자료와 그의미」,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 12.
- \_\_\_\_\_, 「燕巖 尺牘小品의 문예미」, 韓國漢文學研究 제31집, 韓國漢文學會, 2003. 6.
- 鄭大林, 「梁慶遇와 意味찾기의 詩學」,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學會, 2003.
- 정우락, 「갈천 임훈 첨모당 임운의 사상과 문학: 첨모당 임운의 문예의식과 정진의 시세계」, 『동방한문학』, 동방한문학회, 2002.
- \_\_\_\_\_, 「南冥學派 文學에 나타난 作家意識의 二重構造와 意味志向」, 韓國思想과文化 제19집, 修德文化社, 2003. 3.
- \_\_\_\_\_, 「論語에 나타난 공자의 예술정신과 문학사상」, 『대동한문학』 18, 대동

- 한문학회, 2003.
- 정우봉, 「『書橋藝學錄』의 散文修辭學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12.
- 정재철, 「『詳說古文眞寶大全』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12.
- 정학성, 「전기소설 <劉少娘傳> 연구」, 古小說研究 제16집, 한국 고소설학회, 2003.12.
- 정향교, 「栗谷 李珣의 詩文學 研究」, 『東岳漢文學論集』 11집, 동양한문학회, 2003.
- 鄭煥局, 「19세기 文論史에서의 崔漢綺의 文章論」, 大東文化研究 제43권,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2003.9.
- 정환국, 「19세기 文論史에서의 최한기의 문장론」, 『대동문화연구』 제4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 조규익, 「翼宗 樂章 研究」, 『고전문학연구』 24집, 2003
- 조성을, 「여유당집 잠문후편의 연대고증」, 『문헌과 해석』 23, 2003. 여름.
- 趙榮鎬, 「이승소의 한시를 통해 본 15세기 관료의식의 한 국면」,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 12.
- 조태성, 「논문제목 초의선사의 차시에 대하여」, 『고시가 연구』 11, 한국고시가학회, 2003.
- 左 江, 「李植『杜詩批解』의文學批評觀」,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學會, 2003.
- 진재교, 「18세기 朝鮮朝와 淸朝 學人の 학술 교류」, 『古典文學研究』 23, 韓國古典文學會, 2003.
- 진재교, 「『北塞雜謠』에 나타난 北關의 眞景과 邊境民의 삶」, 韓國學論集 제37집, 漢陽大學校韓國學研究所, 2003.10.
- 진재교, 「풍산 흥문과 이계 홍양호」, 『문헌과 해석』 24, 2003. 가을.
- 최경환, 「李廷範의 「野亭四詠」 시와 4수 연작 누정집영시의 작시원리」, 『동양한문학회연구』 제17집, 동양한문학회, 2003.4.
- 최용례,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작가의식과 사상」,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崔恩周, 「朝鮮後期 詩文選集에 나타난 明代 文學의 수용 양상」, 『東方漢文學』 24, 동방한문학회, 2003.6.
- 최재남, 「『심경』 수용과 <도산십이곡>」, 배달말 통권 제32호, 배달말학회, 2003.6.
- \_\_\_\_\_, 「魚得江의 삶과 시의 특성에 대한 一考」, 『韓國漢詩研究』 11, 韓國漢詩

- 學會, 2003.
- \_\_\_\_\_. 「인재 崔暉의 삶과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3.
- 최한선, 「풍암 서술시의 이해론적 전제와 미학」, 『고시가 연구』 11, 한국고시가 문학회, 2003.
- 홍인숙, 「17세기 여성사의 문제적 인물, 尤庵 宋時烈 : 碑誌類, 祭文과 <우암선생 계녀서>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제18집, 東洋古典學會, 2003.6.
- 黃渭周, 「漢文의 初期 定着 過程 研究(3)」, 『東方漢文學』 24, 동방한문학회, 2003.6.
- \_\_\_\_\_. 「중국 소재 한국 고문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제18집, 대동한문학회, 2003.